

##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표현

Misogynistic Cyber Hate Speech in Korea

---

저자 (Authors)	김수아 Kim, Soo Ah
출처 (Source)	<a href="#">페미니즘 연구 15(2)</a> , 2015.10, 279-317(39 pages) <a href="#">Issues in Feminism 15(2)</a> , 2015.10, 279-317(39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한국여성연구소</a> KOREA WOMENS STUDIES INSTITUTE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531508">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531508</a>
APA Style	김수아 (2015).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표현. 페미니즘 연구, 15(2), 279-317
이용정보 (Accessed)	이화여자대학교 203.255.***.68 2020/01/27 13:55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표현\*

김 수 아\*\*

### 국문초록

이 글은 2015년 현재 대중문화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여성혐오' 표현을 온라인 문화와 관련지어 살펴보았다. 여성을 외모, 나이로 가치 평가하고, 신체의 일부나 성기로 치환하여 표현하거나, 성적 도구로 표현하고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고정관념과 차별, 비하, 멸시의 정서가 특정한 언어로 현현되어, 현재 한국 온라인 문화 속에서 일상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는 일부 온라인상의 문제아들이 벌이는 일이라고 치부한다고 해도, 상시적인 노출이 가능한 온라인 환경상 혐오 표현의 생산 및 유통이 고정관념의 강화나 비하 정서의 일반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혐오 표현은 여성에 대한 편견을 공고히 하고 사실화하며, 규제를 살짝 벗어나는 방식으로 확대되고 재생산되는 중에 있다. 여성주의적인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온라인 공간의 성평등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주제어

온라인 여성혐오 표현, 여성혐오, 사이버 문화, 편견 재생산

\* 이 글에서는 2014년 12월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발표한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모니터링 보고서』의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글의 수정 보완에 도움을 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 1. 들어가며

2015년 들어 ‘여성혐오’는 한국 사회와 대중문화의 주요 논제가 되었다. 물론 ‘여성혐오’가 2015년에 갑자기 발생한 현상은 아니다. ‘여성혐오’가 대중적 화두가 된 이유는 한편으로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여성혐오’적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의 시선을 보내면서 기존에는 문제시 되지 않던 내용들이 논의되고 언론을 통해 화제가 되는 일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여성혐오’적 요소들이 일종의 잘 팔리는 마케팅 전략으로 간주되는 문제가 있다. 2015년 8월 주로 남성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잡지 『맥심』이 ‘나쁜 남자’를 주제로 삼은 표지를 출판하면서 발생한 논란에 대해 문화기고가 윤광은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여성혐오’ 콘텐츠는 ‘노이즈 마케팅’으로 승격한 것 같다.”고 평했다.<sup>1)</sup> 이러한 평이 일정 정도 현실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2015년 상반기 대중문화 콘텐츠 및 일상문화와 관련하여 ‘여성혐오’ 논란이 일어난 경우는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지만 그로 인해 콘텐츠 생산자에게 문제가 발생하기보다는 그 콘텐츠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져서 상업적인 성공이 가시화되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다.<sup>2)</sup> 이는 ‘여성혐오’에 대한 논란이 대중문화 콘텐츠 소비자들에게 소구요인이 되며, 그 콘텐츠가 전달하는 의미에 동조하거나 이를 즐거움의 원천으로 삼는 정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한다고도 할 수 있다.

여성에 대한 비하, 차별을 당연시하고 더 나아가 혐오를 표현하는 ‘여성혐오’ 표현과 정서는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텔레

---

1) 윤광은의 페이스북 게시물 중 인용함. 2015.9.6. <https://www.facebook.com/kwangeun.youn>(2015년 9월 7일 검색).

2) 래퍼 송민호의 가사 논란이 발생한 〈쇼미더머니 시즌4〉는 기존 시즌보다 훨씬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고, 과거 팟캐스트의 발언과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언행이 문제가 된 개그맨 장동민의 경우에도 〈디자이너스 그랜드파이널〉 등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비전이나 잡지 같은 매체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고 있지만 온라인 공간은 접속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없다. 또한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기 쉬운 특성 때문에 의견의 집단 극화가 일어난다. 오미영(2011)은 인터넷 익명 상황에서는 집단 정체성이 분명해지면서 특정 집단을 무조건 옹호하거나 무조건 비난하는 사이버 홀리건과 같은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나 좋아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습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나은영(2006)은 온라인 공간은 의견 극화가 일어나기 쉬운데, 그 이유는 온라인 상황에서는 어느 한 쪽을 지지하는 의견이 더 많이 게시되면 그 의견이 실제로도 다수인 것으로 인지하게 되어 자신의 의견을 조정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인터넷은 익명성의 공간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체면 관리 때문에 할 수 없는 표현들을 쏟아내기도 하며, 수치심이나 윤리의식 역시 잘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박성호, 2003).

이러한 온라인 공간의 기술적 특성과 맞물려, ‘여성혐오’의 정서는 최근 한국 온라인 공간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동조되어 지배적인 의견과 정서로 굳어지는 중에 있다. 그렇다면 한국 온라인 공간의 ‘여성혐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에 대한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 것일까? 이 글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현재 한국의 온라인 공간에서 표현되고 구성되며 유통되는 ‘여성혐오’ 표현과 그에 대한 대중적 해석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여성혐오’의 개념을 알아본 다음, 온라인 공간에서 유통되는 표현을 유형화하여 그 문제점과 담론적 효과를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그리고 온라인 공간의 ‘여성혐오’ 정서가 어떠한 논리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여성혐오 현상과 관련된 기존 논의들을 통해 살펴보면, 온라인상의 ‘여성혐오’에 대한 담론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2. 이론적 논의

### 1) ‘여성혐오’의 개념과 정의

‘여성혐오’와 관련하여 생기는 혼란의 일부는 ‘혐오’라는 감정의 표현과 관련되어 있다. 여자를 싫어하거나 꺼리는 것, 미워하는 감정의 표현이 여성 혐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남성 중심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혐(‘여성혐오’의 줄임말로 유통되는 신조어)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다. 여자라면 환장하는 사람들밖에 못 봤는데”라는 표현을 찾을 수 있는데<sup>3)</sup>, 이는 ‘여성혐오’를 말 그대로 여자를 ‘싫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세와 근대에서 ‘여성혐오’는 여성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었다. 중세에는 종교적 개념으로 여성을 바라보고, 여성의 월경을 더럽게 생각하거나, 혹은 여성이 타락을 의미하는 존재로 성이 모든 악의 근원이며 여성이 이 성욕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죄악시하고 혐오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김현란, 2011). 여성을 죄악시하는 태도는 차별받아야 마땅한 대상으로서 여성을 의미화하는 것과 관련되어, 예컨대 셰익스피어의 작품들 속에는 가부장제 제도에 대해 저항하는 여성을 과하게 징벌하는 ‘여성혐오’적인 태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김문규, 2002; 김종환, 2005).

위의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에서 발화자는 혐오라는 개념을 ‘꺼리고 싫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여성을 일반적 오염 요소나 악의 근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결혼의 대상 혹은 성욕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남성의 일반 정서임을 주장하며 ‘여성혐오’의 실질적인 존재를 의문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3) “전 ‘여혐문화’라는 걸 커뮤니티 하면서 처음 알게 됐네요.” mlbpark.com, 불펜 게시판 2291802 게시물(2015년 8월 31일 검색).

러나 혐오는 단지 여자를 ‘싫어하는 혹은 꺼리는 것’이 아니고, ‘여자라면 환장하는 것’ 역시 ‘여성혐오’의 정의에 따르면 문제적인 현상이다. 우에노치즈코는 그의 저서에서 ‘여성혐오(misogyny)’는 여성에 대한 멸시를 의미하여, 여자를 성적 도구로만 생각하고 여성을 나타내는 기호에만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이는 “성별이원제 젠더질서의 심층적 핵”이다.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성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여성의 객체화, 타자화, 즉 여성 멸시를 그는 여성 혐오라고 불렀다(우에노치즈코, 2012: 12-13).

이렇게 본다면 가부장제 하의 성차별과 관련된 현상들이 ‘여성혐오’ 개념과 연결될 수 있다. 즉 포르노그래피, 카사노바, 창녀/성녀의 구분 등이 모두 이 ‘여성혐오’ 개념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여자라면 환장하는 것’ 역시 여성 혐오의 표현인 것이다.<sup>4)</sup> 우에노치즈코의 논의에서 핵심은 가부장제적 질서이다. 이는 단순히 개인이 개인에 대해 갖는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성차별 구조와 질서를 뒷받침하는 집단적인 정서구조<sup>5)</sup>라는 것이다. 성차별주의(sexism)와 함께 쓰이는 ‘여성혐오’ 개념은 단지 여성에 대한 감정적인 차원, 혹은 증오뿐 아니라, “이미 몸에 깊이 뱀 여성에 대한 편견”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나타난다(Mclean & Maalsen, 2013). 또한 애덤스와 풀러(Adams & Fuller, 2006: 939)는 ‘여성혐오’란 여성에 대한 증오, 멸시를 말하는데 여성을 남성의 소유, 이용이나 착취, 혹은 학대의 대상으로 환원하는 것이며, 전 사회적으로 퍼져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4) 이런 의미에서 ‘남성혐오’라는 말이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남자를 싫어하거나 비하하는 것, 즉 ‘싫어하는 감정’과 ‘혐오’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이 갖는 사회적, 권력적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5) 윌리엄스(Williams, 1977)는 정서의 구조(Structure of feeling)라는 개념을 통해 당대 문화가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에 의해 정형화된 패턴을 보일 때, 그 결과물 아래에는 심층적으로 공통의 경험과 정서가 깔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에노치즈코의 ‘여성혐오’ 개념은 가부장제 문화의 다양한 결과물들 아래에 깔려 있는 정서와 경험을 의미하는 일종의 정서구조로 이해될 수 있다.

물론 ‘여성혐오’는 그 역사적 맥락, 그리고 사용되는 문화권에 따라 정의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진단 역시 복합적일 수 있다. 우에노치즈코의 논의는 일본 사회의 사회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데, 그의 설명은 ‘여성혐오’가 남성의 위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미국에서는 ‘여성혐오’를 사이버 성희롱(cyber harassment)의 맥락에서 다루면서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공격으로 분석하기도 한다(Citron, 2009; 2011). 누스바움(Nussbaum, 2012)은 미국의 사례를 들어 온라인상의 여성혐오가 ‘대상화’와 핵심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누스바움이 개념화한 ‘대상화’는 상대를 목적을 위한 도구로 취급하여, 상대의 감정이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대상을 특정 개념으로 환원하는 것, 대상의 자율성을 부인하는 것, 대상의 활력을 부인하는 것, 대상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 대상을 언제든지 무너뜨리거나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 사고팔 수 있는 것처럼 간주하는 것과 대상의 감정이나 주체성을 거부하는 것 등으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포르노그래피적인 이미지는 가장 극적인 ‘대상화’의 형태이며, 강간 위협 역시 ‘대상화’와 관련된다. 누스바움은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현재 미국의 온라인 상황에서 ‘여성혐오’ 발언이 여성에 대한 ‘대상화’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 2) 혐오 발언과 그 문제

혐오 발언(hate speech)은 표현의 자유 논리와 대치하면서 다양한 범주와 수준의 논란 속에 있다. 혐오 발언은 인종, 민족, 종교, 성별 등을 근거로 대상에 대한 증오를 표명하는 것으로 집단적 특징을 근거로 그 집단이 열등하다는 편견을 퍼트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박용숙, 2014). 인종, 종교, 성적 지향성, 정치적 지향성, 국적, 민족, 피부색, 성별 등의 속성에 대

해서 발화자가 가진 선입견에 근거하여 이를 공격하는 것인데, 대체로, 선동적이고 모욕적이며 위협적인 발언으로 개인 또는 집단을 공격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다. 즉, 단순한 개인적 의견 표명이라기보다는 차별당하는 집단과 그 구성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홍성수, 2013).

이러한 혐오 발언이 위험한 것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해악을 미치기 때문이다. 혐오 발언은 피해자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인데, 그 정체성은 대체로 자신이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인종, 성별, 성적체성 등)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긍정하고 자신을 계발해 나가는 것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또한 이러한 편견에 근거하여 사회적 차별이 실질적으로 이어지고, 집단 간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점, 이에 실질적인 사회적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혐오 발언의 위험성을 찾을 수 있다. 나라(2015)는 성소수자와 관련된 혐오를 논하면서 혐오가 차별을 선동하고 있다는 점을 적시하고, 사회적 위기의 책임을 성소수자에게 돌리는 정치의 내면을 파악해야 함을 주장한다. 그러므로 정서 즉 혐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차별을 선동한다는 점에서 혐오 발언의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

서구의 맥락에서 혐오 표현에 대해 스튜어트(Stewart, 2001)는 단계적으로 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한 바 있다. 사실과 의견의 구분이 중요하고 의견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일반적 인식에 비추어, 사실로 차별을 확정하는 표현은 문제가 된다(“동성애는 병이며 최악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위협적 표현을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다. “동성애자는 지옥에 가라”는 표현은 만약 오프라인 상황에서 전달될 경우 물리적 충돌도 야기할 수 있으며 표현의 수위 자체로도 위협적이다. 만약 이를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하게 되면 더 표현의 수위가 높은 것으로 본다. 또한 경고를 담거나 위협을 담은 표현들은 이후의 상황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으로 가장 표현의 수위가 높은 것이다. 이렇게 혐오 발언의 수



위를 나누어 보는 것은 한편으로는 혐오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차별이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담론화 하고 문제시 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지구적으로 연결되고 익명으로 발화 가능한 디지털 세계에 들어서면서 혐오 발언은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매이지 않고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형태로 혐오 발언이 생산되고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상의 혐오 발언은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종교적 모욕, 동성애 혐오, 장애인에 대한 모욕, 정치적 혐오, 성차별주의와 폭력적 포르노그래피, 테러리즘, 사이버 불링과 스토킹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Foxman & Wolf, 2013). 게다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확장되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혐오 발언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아원(Awan, 2014)은 트위터 내에서의 이슬람 혐오 발언을 추적하고 유형화하였고, 바틀렛과 그 동료들(Bartlett et al., 2014)은 트위터 상의 ‘여성혐오’ 표현과 발언들을 조사하여 상당수의 혐오 표현들이 매우 일상적으로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혐오 발언에 대한 대응은 쉬운 문제는 아니다. 특히 법적 규제는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1조를 중시하는 맥락에서 국제규약에서조차 혐오 발언의 규제를 반대하고 있는 형편이다(이향선, 2014; Banks, 2010). 학자들 사이에서도 혐오 표현의 규제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마츠다(Matsuda)는 혐오 표현이 지속적으로 발화되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은 그 “피해자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Matsuda, 1993: 17), 만약 그에 대한 국가의 공적 대응과 법적 보상이 부인된다면 그 피해자들에게는 더 큰 고통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규제를 지지한다. 하지만 글래스(Glasser, 1994)는 이미 구조화된 차별 상황에서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면 이는 국가나 지배자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한편 버틀러(Buttler, 1997)는 포스트 구조주의의 맥락에서, 혐오

발언은 일단 발화가 되어 인용되면 그 맥락을 떠나서(ex-citable) 발화자와 청자의 상호 관계 속에 그 의미가 재창조되거나 새로운 의미가 창출될 수 있어 혐오 발언의 해악이 오히려 치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규제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또한 규약이나 제도만으로 혐오 발언을 줄이기가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법적 규제가 어렵고 그 효과가 보장되기 어려운 만큼, 뱅크스(Banks, 2011)는 인터넷서비스제공업자(ISP)들의 노력을 일차적으로 언급하지만, 이러한 업체 측의 모니터링 노력 외에도 시민의 지각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페이스북이 여성 혐오 콘텐츠를 방치한다는 시민과 여성단체의 비난에 대해 일종의 기술적, 윤리적 책임을 지기로 한 것<sup>6)</sup>은 이러한 시민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주요한 방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시민성이 혐오 문제의 핵심인 것은 분명하지만, 현실적으로 시민성의 교육 이상은 근본적인 해결책인 만큼 요원하다는 문제도 있다. 한국의 경우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중심으로 2013년까지 차별금지법 논의를 통해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고, 혐오 표현이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선동 기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 미루어 표현의 자유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시도를 해 왔다. 하지만 보수 집단의 반발을 우려하여 제도화 논의 자체가 여러 차례 무효화됨으로 하여 더 이상 공적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성과 공론장의 회복만큼이나 법적, 제도적 규제가 최소한의 수준에서 필요하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대한 제도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

6) CNN, "Under pressure, Facebook targets sexist hate speech", 2013. 5. 20. <http://edition.cnn.com/2013/05/29/tech/social-media/facebook-hate-speech-women>(2015년 8월 31일 검색).

### 3) ‘여성혐오’와 한국의 온라인 공간

윤보라(2013; 2015)의 지적대로 최근 3-4년간 한국의 온라인 공간에 ‘여성혐오’ 발언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정서나 담론이 최근의 것만은 아니다. 2000년을 전후하여 초반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성희롱으로 다루어진 사례들은 바로 현재 ‘여성혐오’라고 논의되는 정서와 태도에 기반을 둔 것이다. 일방적으로 성적 메시지를 보내거나, 성과 관련한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피해 사례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이 ‘대상화’되어 다루어지고 성적 대상으로만 간주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이미경, 1999). 성별이나 인종과 같은 현실 세계의 차별 지표는 익명성을 근거로 사라질 것이라는 온라인 공간에 대한 장밋빛 전망은 그저 희망사항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1999년 소위 ‘군가산점제 위헌 소송’이 온라인상의 반페미니즘 담론을 격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사이버 마초, 여성에 대한 사이버 테러 등으로 명명되었던 1999년~2000년 경 온라인 반페미니즘 담론은(권김현영, 2000) 비교적 이용자도 적고 엘리트 중심이었던 PC 통신 시대에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기초로 누구나 쉽게 클릭만으로 사이버 행해를 할 수 있는 월드와이드웹 시대로 변화하게 되면서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더 폭넓은 확산의 계기를 갖게 되었다.

2001년 소위 “월장사태”는 사이버 스토킹은 물론 여성에 대한 혐오 발언과 협박, 공격이 정당성을 갖는 것처럼 여겨지게 된 사례에 해당한다. 여성주의 웹진 월장에 게재된 글 “도마위의 예비역”이 성스러운 병역의 의무를 다한 남성을 비하한다는 논란이 시작되면서, 웹진 관련자들의 신상 정보가 노출되어 신상 정보 공개에 따른 공격과 협박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후로 여성주의자는 명백한 남성의 적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여성주의를 표방하는 특정 여성에 대한 비난, 여성부에 대한 비하 등 여성의 권익이나 평등

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공격하는 일이 일반화되었다. 김수아·최서영(2007)은 인터넷 상에서 돌아다니는 여성부에 대한 루머 게시글이 루머임을 안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남성 온라인 이용자들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그 내용들이 여성부의 정책이 아니라고 해도 여성부는 잘못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여성주의와 여성부는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나쁜 여성주의자를 분리’해 내는 전략을 구축하고 있음을 보였다.

그런데 이러한 여성주의자에 대한 비난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일반 여성들 전반으로 확장되면서, ‘여성혐오’ 적인 양상을 보다 분명하게 보이게 되었다. 개똥녀(2005), 강사녀(2006), 군삼녀(2007), 신상녀(2008), 루저녀(2009), 명품녀, 패륜녀, 지하철 반말녀(2010) 등 매년 새로운 ‘녀’를 온라인 상에서 만들어내고 그 특정한 여성의 신상에 대한 공격과 비난은 물론 여성 일반에 대한 비하와 폭력적 낙인으로 확산되는 양상들이 드러난 것이다(주창윤, 2011). 황슬하·강진숙(2014)은 이러한 여성 호명 담론들이 개별 여성을 온라인 공간이라는 광장으로 끌어와 집단 처벌하는 마녀사냥의 성격을 갖고 있고 여성에 대한 비난 및 혐오 담론을 구성해 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경계하였다.

김수아(2011)는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온라인 공간은 성별화되어 있다고 단언한다. 남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공간과 여성들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여성들만의 공간은 가입 절차에서부터 여성만을 회원 자격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흔히 남초 커뮤니티, 여초 커뮤니티라고 불리는 곳은 성별 가입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이용자가 한쪽 성별에 쏠린 경우를 말하고 있다.<sup>7)</sup> 이는 물론 커뮤니티의 속성이 대체로 사회적으

---

7) 대표적인 남초 커뮤니티는 엠엘비파크(mlbpark.com)를 비롯한 스포츠 커뮤니티, PGR21(pgr21.com)을 비롯한 게임 커뮤니티 등 남성 취미와 관련된 사이트들을 말하고, 여초 커뮤니티는 베스티즈(bestiz.net)을 비롯한 연예정보 커뮤니티와 소울드레서, 쌍화차코코아 등 다음 카페, 미즈넷이나 82cook으로 대표되는 주부 커뮤니티 등을 꼽고 있다.

로 이미 젠더화된 것들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긴 하다. 즉 남성 커뮤니티는 스포츠, 게임, 기술 등 전통적으로 남성적인 것과 관련된 커뮤니티이고, 여성 커뮤니티는 육아, 외모 가꾸기, 요리 등에 관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커뮤니티가 좀 더 비공개적이며, 그러 인해 여성들의 목소리가 온라인 공간에서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김수아, 2011). 인터넷의 공론장적 기능은 다양한 시민 주체들의 목소리가 울리고 상호 경쟁하는 것을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이 공론장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이 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이 공론장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진다.

PC 통신 시대부터 시작된 여성에 대한 비하, 모욕, 차별적 표현들은 월드와이드웹 인터넷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되면서 여성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한국에서 사이버 성폭력, 온라인 성폭력과 관련된 학술적 논의는 2000년을 전후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인터넷 문화의 태동 시기부터 여성 배제 현상은 분명하였던 것이다. 인터넷 문화의 확산 과정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안티-페미니즘 모임이 결집되어 나타나기 시작했고(2008년 남성연대 설립), 일간베스트 사이트(2009년 설립)의 문제가 사회 담론의 장에 전면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일간베스트 사이트(이하 일베)와 같은 경우는 여성성과 성적 차이 자체를 혐오하는 공간으로 문제 지점이 되고 있으며(윤보라, 2013), 인터넷 상의 불법 정보를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와 심의 주요 대상이 되었다. 일베를 중심으로 연구자들에게 논의되던 ‘여성혐오’ 현상은 2015년 각종 대중문화 현상 속에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는 가시화의 문제로서 테크놀로지의 변화로 인해 그 확산 속도와 폭이 넓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성혐오’의 정서나 표현이 갑작스럽게 2015년을 전후로 등장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 3. 온라인상의 ‘여성혐오’ 표현 유형 분석

#### 1) ‘여성혐오’ 표현의 내용과 수준에 따른 유형 분석

그렇다면 현재 한국의 온라인 공간에서 나타나는 ‘여성혐오’ 표현은 어떤 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 내용 차원에서 혐오 표현의 양태를 살피는 것은 성차별의 고착과 편견의 재생산에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표현의 공격성 수준을 분리하여 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앞서 논의한 것처럼 혐오 표현이 단지 말이 아닌, 이 혐오 표현을 듣는 이에게 충격과 고통을 안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Matsuda, 1993). 이 글에서는 온라인상의 ‘여성혐오’ 표현에서 드러나는 비하와 차별의 내용으로 ‘외모’, ‘성과 여성성’, ‘나이’, ‘능력’이라는 범주를 도출했고, 표현의 공격성 수준은 ‘신체’와 ‘성’을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들이 하나의 게시글이나 댓글 내에서 복합적이고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sup>8)</sup> 또한 이 분석은 2014년 진행되었기 때문에 특정한 시기의 특정한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다.<sup>9)</sup> 아래의 <표 1>에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분석한 유형과 그 특징을 정리하였다.

이 글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렇

---

8) 또한 여기서 분석된 게시글과 댓글들은 일간베스트([www.ilbe.com](http://www.ilbe.com))와 같이 여성 혐오를 주요 정조로 하고 있다고 비난받는 사이트는 물론, 엠엘비파크([mlbpark.com](http://mlbpark.com)), 디씨인사이드([dcinside](http://dcinside.com)) 등의 일반 남초 커뮤니티 사이트와, 네이버, 다음, 네이버 등의 주요 포털 사이트 뉴스 댓글 등이다. 여성 혐오 표현의 일상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포털 사이트 등을 포함하였다.

9) 잡지 『도미노』7호에서 김용언은 ‘김치년 백년사’라는 기고문을 통해 ‘여성혐오’가 최근의 것만이 아님을 보였다. 실제로 ‘된장녀’ 이전에 ‘이즘마’는 여성을 비하하는 대표적 기표로 사용된 바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역사적 맥락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연구 대상으로는 현재의 한국 온라인 공간에 대하여 한정하여 현재 시점에 사용되는 특정한 ‘여성 혐오’ 표현의 논리 구조를 분석하였다.

기 때문에 커뮤니티와 온라인 공간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정 커뮤니티는 해당 표현을 쓰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청정’한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성혐오’를 가부장제 질서 유지의 중핵으로 본다면, 사실상 표현의 수위만이 다를 뿐이지 누스바움의 개념에 따른 여성 ‘대상화’의 문제는 특정 온라인 공간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다만 표현의 수위는 일정 정도는 온라인 공간의 ‘규제수준과 관련된다. 구성원의 정체성이 중요하고 합의를 중시하는 커뮤니티 규약이 존재할수록 혐오 표현의 수준은 낮아진다. 그러나 뉴스 사이트의 댓글이나, 커뮤니티 규약에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를 방조하는 경우는 혐오 표현의 수준이 극단화되어 나타난다.

또한 이 ‘표현’의 공격 대상 역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해외 사례의 경우 특히 특정한 여성(페미니스트 활동가나 동급생 등)에 대한 공격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이 보고된다면(예를 들어, Jane, 2014; Sarkeesian, 2012), 한국의 온라인 공간은 이러한 특정한 여성에 대한 공격 형태를 넘어 (‘개똥녀’의 경우), ‘김치녀’와 같이 한국 여성을 일반화하여 비하, 공격하는 형태가 일반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래의 <표 1>에 드러나는 ‘여성혐오’ 표현들은 뉴스 사이트에서 연예인 기사에 댓글을 달 때처럼 특정 여성들에 대해서 쓰일 수도 있지만, 뉴스 댓글 혹은 커뮤니티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대화 속에서 여성 일반을 지칭하여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표 1> 온라인 상 ‘여성혐오’ 표현의 유형과 특징

		특징	사례
비하, 편견의 내용	외모	비만, 성형 등이 주요 비하 내용 한국 여성이 외국 여성보다 못하다는 내용	똥녀, 오크녀, 성괴, 껌딱지 등
	성과 여성성	성기와 관련된 욕설 (신조어)	보슬아치, 걸레, 좆집, 정액받이

		여성의 성적 자율권에 대한 침해	
	나이	여성이 특정 나이 때에만 가치가 있다는 생각	상폐녀
	능력	한국 여성의 능력 비하, 직장에서의 무능, 운전과 같은 특정한 영역의 무능	김여사
표현 수준	신체에 대한 폭력적 표현	살해, 폭력을 직접적으로 기술	삼일한
	성 폭력 표현	강간 위협 성기에 대한 폭력	일반화된 강간 표현들

누스바움(Nussbaum, 2012)은 미국의 사례에서 온라인 ‘여성혐오’ 현상에서 남성들이 공격 대상으로 삼은 여성의 외모를 비하하여 수치심을 안기려고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국의 경우는 반드시 성별에 의한 속성이 아님에도 비만과 성형이라는 특성을 여성에게만 특정화하여 비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외모지상주의는 일상생활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규율하는 담론적 기능을 하고 있지만, 이 외모 비하 표현들은 특정한 신체적 특질을 가진 여성을 하나의 집단으로 명시받아 미평한 대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 비하와 멸시는 물론 폭력적 표현들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고, 외모를 이유로 죽이겠다고 하는 등 폭력을 거침없이 결합시키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여성에 대한 혐오 표현이 된다.<sup>10)</sup>

그리고 이러한 외모 비하는 성형수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비난과 결합되어 있다. 성형수술 자체가 비난받아야 하는 행위가 아님에도 성형을 했다는 이유로 성형괴물(성괴)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다. 게다가 성형은 한

10) ‘썸오크 돼지 같은 년들... 때려죽이고 싶다’는 등의 표현이 등장한다.



국 여성의 특징처럼 확장되어 편견을 강화한다. ‘여성혐오’가 비난받아 마땅할 여성들을 구성해 내는 것과 관련된다면, 성형을 한 한국 여성, 가슴이 작은 한국 여성, 엉덩이가 작은 한국 여성 등 외모를 중심으로 한국 여성 일반에 대한 비하로 확장되는 현재 온라인상의 ‘여성혐오’ 표현들은 여성의 등급을 나누는 일이 민족 개념을 포함하여 확장되고 있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표현들은, 랭턴(Langton, 2009)이 말한 포르노그래피적 ‘대상화’를 글로 옮겨 놓은 것과도 같다. 랭턴은 대상을 외모나 외모의 일부로 축소하는 것이 포르노그래피의 ‘대상화’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했는데,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표현들이 이러한 ‘대상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대상화’는 기본적으로 상대를 사물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여성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모 비하에 기반을 둔 ‘여성혐오’적인 표현들은 이를 보는 여성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성적 비하는 성기와 관련된 욕설, 모욕적 표현 등을 포함한다. 또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비난과 모욕 등이 포함된다. 특히 신체 일부와 성기를 지칭하는 용어가 비하 표현을 위해 자주 변형되거나 결합되어 사용되고 있다. 여성을 성기로 치환하여 표현하는 것은 여성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남성의 성욕 대상으로만 여성의 역할을 표현하는 ‘대상화’로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표현들이 상시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상화’를 당연시하고 문제 삼지 않게 되는 담론적 효과를 갖는다.

그리고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비하가 존재하는데, 이 경우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여성을 성녀/창녀의 이분법으로 바라보는 관념에 근거한 혐오이다. 성적 환상이나 성적 자유에 관련된 발언을 한 여성에게 걸레나 갈보 등의 표현을 쓰는 경우도 많으며 여성의 성적 순결에 대한 고전적인 편견을 통해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부인하는 비하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성의 연령이 차별과 멸시의 요인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신조어는 일베에서 만들어 낸 것으로 ‘상폐녀(상장폐지녀)’가 있다. ‘상폐녀’는 30대 이상의 여성들이 여성으로서의 가치가 없어 주식 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것과 마찬가지로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말이다. 이는 여성의 성적 도구화에도 관련이 깊다. 여성을 성이나 출산의 도구로 생각하여 연령을 문제 삼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여성의 사회적 능력을 폄하하거나 특정한 기술을 습득하는 능력 등에 대해서 폄하, 비하하는 경우가 있다. 여성의 능력 부족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으로 통용되는 단어는 ‘김여사’일 것이다. 이 표현은 운전자의 성별과 상관없이 운전을 이상하게 한 경우, 상식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사고가 나는 경우 두루 사용된다. 이에 실제 운전자가 남성이었음에도 ‘김여사’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신문보도조차 여성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김여사’라는 표현으로 특정화한다.

이러한 비하와 혐오 표현들은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 온라인상에서는 표현이 극단화되면서 여성에 대한 살해, 폭력의 행사를 암시 혹은 명시하는 것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폭력적 표현은 혐오 발언에서는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것인데, 이 메시지를 접하는 사람들이 심리적 위협을 느끼고 위축될 수 있으며, 발화자의 실질적인 폭력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일베에서 만든 신조어 ‘삼일한’(여자는 삼일에 한번 패야 한다)이 있다. 꼭 이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두들겨 맞아야 한다, 혹은 때려야 한다 등으로 여성이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미를 담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위협을 표현하는 경우는 성적 위협과 결합하는 경우가 있어 더욱 문제가 된다. 강간 위협, 성기에 대한 폭력을 언급하는 등의 성적 위협은 신체적 폭력에 대해 표현하면서 강간을 하겠다고 하거나 성기에 대한 폭력 표현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표현은 대체로 극단화된 폭력을 포함하고 있어 관련된 글을 읽는

이들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게 된다. 특히 ‘여성 할례’, ‘자궁 적출’ 등 극단화된 폭력 표현은 주로 익명이 보장되고 규제가 적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네이버 등의 좀 더 공개적인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11)</sup>

이러한 표현들은 네이버 뉴스 댓글의 공감 숫자 등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편견의 강화, 선동과 조작 효과를 갖는다. 뉴스 댓글에서의 극단적인 폭력 표현에서 공감과 신고 횟수가 비슷하거나 어떤 경우 공감이 더 많은 것은, 온라인상에서 여성에 대한 비하와 멸시, 편견을 함의하는 혐오가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증명한다. 여성에 대한 혐오 표현이 칭찬을 받고, 공감을 받는다는 점은 다시 한 번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뿐 아니라 선동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공적이라는 점에서 포털 뉴스 사이트의 댓글은 좀 더 주의 깊게 고찰해야 한다. 뉴스 댓글이 분석 대상으로 유의미한 것은 현재 한국의 언론 상황과 관련이 있다. ‘헤드라인 저널리즘’으로 명명될 만큼 기사 제목만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 최근 세대에서(이준호, 2015), 포털 뉴스와 인터넷 언론사들은 이용자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하며 실시간 트래픽을 확보하여 광고 시장에 우위를 차지하고자 하고, 연예 뉴스를 중심으로 선정성을 중요 가치로 삼고 있다(남재일, 2015; 신동희, 2014). 실시간 트래픽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서 뉴스 댓글은 이용자의 주목을 끄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댓글이 많은 뉴스가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댓글은 좀 더 접근성이 높은 공적 공간으로 나오게 된다. 이러한 공적 공간의 혐오 표현은 특정 커뮤니티와 달리 쉽게 접할 수 있고 공개적이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가 된다.

---

11) 물론 인터넷 언어의 탄생과 유통에 대해서 명백하게 하나의 흐름을 잡을 수는 없다. 그러나 2014년 기준으로 네이버 댓글에 사용되는 표현의 상당수는 일베와 디씨인사이드 혹은 오늘의 유머와 같이 잘 알려진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하는 하위문화적 표현들에서 유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한국 여성’에 대한 집단화: ‘김치녀’ 담론의 논리 구조

‘김치녀’는 ‘한국’을 표현하는 단어로 김치를 선택하여 한국 여성의 특징을 구분하려는 시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김치녀’에게 특정한 속성을 부여하는데, 이 속성은 과거 2000년대 초반 사용되던 ‘된장녀’나, ‘보슬아치’ 등의 표현이 함의하던 바를 한 번에 아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12)</sup> ‘김치녀’의 특성은 어떠한 속성을 일반화시켜 여성에게 부과한 것이다. 비만이고 못생겼고 성적 매력이 없으며, 이로 인해 성형을 하지만 원래 못생겼기 때문에 성형을 해도 예뻐지지 않고 반복하기만 해서 성형 괴물이 된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남성의 돈으로 신분 상승을 하려고 할 뿐이지 능력이 없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민폐를 끼칠 뿐이다. 한국 여성의 특징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여성들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체로 신체적으로 백인 여성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여성은 남성에게 이상적 성적 ‘대상화’의 환상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더 폭력적인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혐오의 대상이므로 폭력과 배제의 대상이 되는 것도 당연하다는 논리도 자연스럽게 성립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김치녀’와 ‘여성혐오’의 정서는 왜 발생하여 유행하는 것일까? 구민경(2014)은 홍성수 교수의 인터뷰를 인용하여 ‘김치녀’를 비롯한 ‘여성혐오’ 현상이 “전반적인 소수자 혐오 현상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과거에도 존재했던 것이지만 2010년대 들어 특히 문제되고 있는 현재의 상태에 대해, 윤보라(2013)는 이러한 ‘여성혐오’적 담론은 ‘김치녀’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꾸준히 존재했던 “여성이 사

---

12) 남성의 돈을 탐내는 여성에 대한 일반적 비하 표현들은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골드 디거(gold digger)라는 비하 표현을 영어권에서는 속어로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표현은 ‘김치녀’처럼 특정 국가의 전체 여성으로 일반화하여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회적 불안이 만들어내는 분노를 쏟아 부을 수 있는 신자유주의적 안전망”으로 되어 온 역사의 다른 한 면이며, 일베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퍼져 있는 ‘여성혐오’의 문제를 주목해야 함을 강조한다. 즉 온라인상에서 표현되는 ‘여성혐오’의 정서는 경제 위기와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불안, 남성의 위기 등과 연계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러한 논의에 미루어 본다면, 특정한 여성이 아닌, 한국 여성 전반이 분노의 대상이 되는 것, 그리고 한국 여성 전반을 가리키면서 말하지만 사실 ‘데이트 비용’과 ‘혼인 비용’ 등을 둘러싸고 젊은 여성들이 더 극심한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은 남성의 위기라는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해진다. 현재 3포 세대, 88만원 세대 등으로 표현되는 젊은 세대들의 절망은 글로벌한 신자유주의 경제 속에서 사라진 안정적인 일자리와 관련되어 있으며, 그래서 “차별에 찬성하는(오찬호, 2013)” 젊은 ‘남성’ 세대들의 정서 속에서 여성은 적대적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유선영, 2013). 배은경(2015)은 가부장제적 생애 기획이 불가능해진 지금 젠더 질서의 재구성 과정에서 일어나는 파열음이 청년 세대 내부의 남녀대립 구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년 남성 세대의 분노가 수평적으로 여성에게 향하는 현상이 현재의 ‘여성혐오’라고 진단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결국 현재 한국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혐오’ 표현이 넘쳐나는 이유는 현재 한국의 남성성 위기와 관련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남성성의 위기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논리는 ‘평등’개념의 전유 및 재구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수아(2015)는 세월호 특별법의 논쟁 국면에서 한국 사회의 평등 논리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도 같게”라는 논리 구조를 중심으로 차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구성되는 점을 보이고 이것이 정서적 평등주의(김수정, 2011)와 맥락을 같이함을 강조하였다. 세월호 특별법 논쟁 과정에서 ‘특별’에 반대하는 측이 지지를 얻어낸 핵심 논리는 ‘법 앞의 평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는 주장

이었다.

이러한 평등 개념의 전유는 남성연대가 ‘양성평등연대’로 ‘평등’의 개념을 전유해가면서 만들어내는 담론 구조와 유사하다.<sup>13)</sup> ‘법 앞의 평등’을 전면  
에 내세우는 ‘남성연대’ 즉 ‘양성평등연대’는 모든 차이를 거부하며, 할당제  
와 이혼 재판의 문제를 핵심적인 사회악으로 거론한다. “남자와 여자의 ‘신  
분, 권리, 책임’에 차별을 두지 말자”는 주장은 일견 ‘같이’ 대우하자는 평등  
의 논리 속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러한 평등 담론의 전유가 바로  
온라인상에서 여성의 무책임에 대한 ‘여성혐오’ 정서의 정당성을 구성하게  
만드는 핵심적 힘이다.

소위 ‘역차별’의 담론 구조 역시 ‘평등’ 개념의 전유와 관련되는데, 역차별  
이란 온라인상의 남성 이용자들이 과거의 여성 차별로 인한 모순이 현재의  
20-30대 젊은 남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상을 개념화한 말이다. 이  
들은 모순의 역사성과 인과 관계를 거부하면서, 과거의 모순에 책임이 없는  
젊은 남성들이 고통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호소한다. 오히려 과거의 모순  
으로 인해 현재 혜택을 보는 젊은 여성들의 지위는 이들 남성의 입장에서  
는 ‘같은데도 다르게’ 취급받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평등이 아니라는 주  
장을 하는 것이다.

성별 권력 구조와 가부장제의 문제, 사회 구조적·역사적 차이를 인정하  
지 않는 이러한 ‘평등’ 개념의 전유 속에서 현재 한국 사회의 젊은 남성은  
피해자의 위치를 자연스럽게 점하게 된다. 온라인상의 ‘여성혐오’ 발화자들  
이 사회적 약자의 위치를 전유하기 위해 활용하는 대표적인 약자의 위치는  
결혼 및 연애 시장에 대한 것이다. 2015년 8월 4일 방송된 MBC의 프로그  
램 〈PD 수첩〉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남성들은 데이트와 결  
혼 문제를 거론하는데, 이것이 그렇게도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배은경(2015)  
의 지적처럼 소비사회로의 변화라는 거시적 맥락이 있지만 동시에 약자의

---

13) 양성평등연대 홈페이지 [http://www.ngoforeq.org/pagew\\_about](http://www.ngoforeq.org/pagew_about) 등 참조.

지위를 ‘참칭’할 수 있는 가장 가시적인 장소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확하게 ‘같이야’하는 평등의 논리 구조에서 5:5로 같지 않은 결혼 비용과 데이트 비용은 5:5로 같을 수가 없는 구조적 요인이나 역사적 맥락을 모두 생략한 채로 가장 손쉽게 ‘여성혐오’의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같은 것을 같게’의 논리 속에서 젊은 남성 세대들은 선택적으로 ‘평등’ 담론을 전유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양성평등연대’는 여성징병을 주장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정말로 ‘같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지 않다’는 것을 선택적으로 강조하여 현재의 여성에 관련된 정책과 사회 문화의 양상들이 ‘평등’이라는 민주적 가치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양성평등연대의 성명서가 제시하는 다양한 ‘같지 않은’ 사례들은 각종 온라인 공간에 호출되어 사용되는 ‘여성혐오’ 정당성의 담론적 근거이다. 그렇다면 ‘같이지면’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양성평등연대의 구호가 ‘조국, 가족, 균형’이라는 것은 유선영(2013)의 지적처럼 현 시대가 ‘우경화 시대’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며, 현재 한국 사회의 남성성 위기가 결국 가족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의 실패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김치녀’는 나와 가족을 이루지 않으려고 하는 여성들에 대한 비난이자 가족을 이루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는 담론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반침대이다. 정당성을 획득한다면 이는 이후의 표현과 행위에 대한 강력한 감정적 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 세월호 유족에 대한 폭식 시위가 가능한 것은 그것이 정당하다는 논리 구조가 있기 때문이다(천관울, 2014; 김학준, 2014). ‘여성혐오’ 표현의 공격성이 문제되지 않는 것도 역시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거시적 맥락 외에도, 온라인 공간의 특성이 반영된다는 점을 살펴보아야 한다. 윤보라(2015)는 ‘여성혐오’의 극단화된 표현이 ‘드립’ 혹은 인터넷 유머라는 관점에서 받아들여지고 확산되는 것을 기술하였다.

한편으로 이는 서구에서도 동일하게 온라인 혐오 표현의 발화자들이 “단지 유머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현재의 온라인상 ‘여성혐오’ 표현은, 고전적인 성차별적 관념들이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대중문화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유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혐오 표현들은 지나치게 일상적인 것이 되어,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겠다.

### 3) 온라인 ‘여성혐오’ 표현의 담론적 효과

여성 집단을 차별하고, 이분법적으로 구성하려는 시도가 ‘걸레’/‘수건’, 혹은 ‘김치녀’/‘개념녀’ 혹은 ‘탈김치녀’와 같은 표현을 통해 드러나기도 하고, 언어적으로 특정화되지는 않지만 게시글에서 드러나는 정서 구조 속에 존재하기도 한다. 이 표현들은 여성 집단을 구분하고 차별화하는 효과를 갖는데,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구분에 담긴 편견이 사실의 지위를 갖고 “실제로 비난받아 마땅한 여성들이 존재한다”는 담론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여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여성 스스로 ‘개념녀’가 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 혹은 여성이 여성을 혐오하는 현상 등이 발생하게 된다.

‘여성혐오’의 언어에 대해서 이것이 “일부 여성”을 향한 것이기에 혐오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쉽게 만나볼 수 있다. 2015년 7월 Mnet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에서 래퍼 송민호의 가사가 문제가 되었을 때, 힙합 아티스트 로우디가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미국 힙합이 비하하고 있는 여성은 일반 여성이 아니라 헤폰 여성,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여성”이라고 말한다.<sup>14)</sup> 이는 미국 힙합의 ‘여성혐오’ 논쟁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했던 논

14) <http://www.instiz.net/pt/3053287> 게시물 참조.



리로, “나쁜 여성(bitch)이 정말로 있다”는 주장에 관련된다(Rose, 2008).

그러나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이러한 재현의 문제는 미국 대중문화에서 흑인 재현의 문제를 둘러싼 논의에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미국 사회에서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의 절반이 흑인이라면, 텔레비전의 범죄 수사 프로그램에서 범죄자를 주로 흑인으로 묘사하는 것은 오히려 현실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미디어 재현의 문제는 그것이 사실을 반영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을 구성하며,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지워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Hill-collins, 2005). 수감자의 절반이 특정 인종의 구성원이라면 그 사회의 구조가 문제가 있다. 그러나 미디어 재현은 이를 그 인종의 속성으로 환원하게 만든다. 흑인 자체가 범죄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쁜 여성’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게 되면 어떠한 특성이나 현상의 속성을 성별과 정체성으로 환원하게 만든다. 나쁜 여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개념녀’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고착시키는 것이다. 외모의 속성이나 성형의 문제는 성별에 의한 것이 아니며, ‘김치녀’를 비판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무개념하고 이기적’이라는 특질 역시 여성이라는 성별과는 무관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여성이라는 속성에 환원할 때, 여성들은 스스로를 강력한 검열 상태에 두게 되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여성이 되기 위한 개인적 투쟁에 내몰리게 된다.

한편 혐오 표현은 단지 말이 아니라 실제로 ‘고통’을 준다는 점 역시 그 담론적 효과로 논의되어야 한다. 제인(Jane, 2014)은 이메일을 통한 ‘여성혐오’ 표현의 전달이 당사자에게 고통을 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특히 공개되지 않은 개인적 공간을 침해당한다는 느낌 때문에 더욱 큰 좌절과 공포를 야기할 수 있다. 이수연 외(2014) 역시 온라인상에서의 성폭력적인 메시지를 접한 여성이 온라인 세계를 떠나게 되거나 온라인 활동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등 실생활에서의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앞선 논의에서 현재 한국의 ‘여성혐오’ 표현에는 성적 도구화와 ‘대상화’가 가장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여성혐오’ 표현을 여성이 접하게 된다면 정체성의 부정은 물론, 도구화되고 ‘대상화’된 존재로서 인격이 부정되는 데 대한 괴로움을 느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대상화’의 문제는 상품으로 취급하고 인격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들이 온라인상에서 아무런 제지 없이 사용된다면 여성의 비인격화, 여성의 주체성 부정이 고착되고 재생산되는 구조가 확립되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혐오’ 표현들은 종국적으로는 공론장예의 평등한 참여를 방해한다. 공개된 공간에서 거침없이 전개되는 ‘여성혐오’의 표현들은 해당 메시지를 접하는 것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는 여성들이 해당 공간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공개된 공론장에서 표현의 자유로 옹호하기에는 표현의 내용과 수준이 미치는 해악은 분명하다. 표현의 자유는 분명 중요하지만, 특정한 대상을 일관되게 겨냥하여 이들의 삶의 가치를 부정하고 차별과 배제를 확산하고 확정하는 혐오 발언의 경우 표현의 자유로 보장할 수만은 없다(홍성수, 2013).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 4. 온라인 ‘여성혐오’ 발언에 대한 문화적 전유의 즐거움과 한계

온라인상의 ‘여성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은 2015년의 경우 우연한 계기에서 전국적인 화제를 낳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 2015년 5월 한국에서 메르스가 퍼지면서 디씨인사이드는 화제에 강한 사이트의 성향상 재빠르게 메르스 갤러리를 만들게 되었다. 그런데 의도하지 않게 메르스 갤러리는 여성 혐오의 패러디가 유행하는 게시판이 되었고 이는 2015년 8월 메갈

리아([www.megalian.com](http://www.megalian.com))라는 여성혐오에 반대하는 사이트의 론칭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 글에서 논의하는 패러디와 그 즐거움의 전략은 페이스북과 독립 사이트 론칭으로 이어진 역사적 과정을 모두 포괄한다기보다는, 메르스 갤러리 생성 초기의 상황(2015년 5-6월)과 관련된 것이다. 메르스 갤러리 사태<sup>15)</sup>로도 언론에 회자되었던 메르스 갤러리의 전략은 후기 식민주의 작가들이 시도한 되받아 쓰기, 혹은 되받아 말하기와 전략적으로 유사하다. 되받아쓰기(Ashcroft, 2002)는 제국의 소설들이 가진 가능성을 찾아내고 이를 재구성하여 식민 이데올로기를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그런데 패러디 혹은 문화적 전유의 형태로 나타난 메르스 갤러리의 글쓰기는 기존의 온라인 상 여성 혐오 발화들의 형태를 ‘주어만 비꾸어’ 표현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전략을 ‘미러링’이라고 표현했다. 미러링(혹은 거울 반사)이라는 개념 혹은 표현을 누가 먼저 사용하기 시작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메르스 갤러리의 글쓰기는 사실상 동일한 패러디의 거울 비추기라기보다는 패러디임이 더 명확하며, 전략적으로는 되받아쓰기에 가깝다고 본다.<sup>16)</sup> 패러디는 모방만이 아닌 조롱과 야유를 담은 풍자성, 때로는 권력에 대한 대담한 도발을 의미하며, 원 텍스트와 패러디된 내용, 그리고 수용자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수행되는 것이다(이광석, 2009; 정끝별, 1997). 또한 패러디는 원본이 가진 절대적 가치를 손상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조롱당하는 원본이 보여주는 사회 현실이나 사상의 가치에 도전하는 것이 된다(우승정, 2014).

메르스 갤러리에서 수행된 패러디 발화들은 온라인 ‘여성혐오’ 발화라는 원 텍스트가 존재하며 패러디 수용자들이 디씨인사이드 갤러리에서 활동하

---

15) 오마이뉴스. “일베도 서럽게 만든 메갈리아의 딸들”. 2015. 6. 2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20985](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20985)(2015년 8월 31일 검색).

16) 미러링이라는 말을 씀으로 해서 이것이 모방의 개념에 근거하며, 혐오의 모방이기 때문에 ‘남성혐오’라는 불필요한 논쟁을 발생시키고 일베와 유사한 수준의 혐오로 통칭되어 버리는 의도하지 않은 부차적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였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즉 패러디 제작자와 수용자가 일치하여 원본 텍스트의 의미와 패러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패러디가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여성 수용자들에게 열광적으로 수용된 이유는 이 원본 텍스트가 매우 일상적이라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되받아쓰기로써, 여성에 대한 혐오 발화의 역사를 재탐색함으로써 여성의 정체성에 손상을 가했던 남성 중심의 온라인 말하기, 글쓰기 구조를 드러내는 의미가 있었다.

예를 들어 다음의 텍스트는, 제작자이자 수용자인 온라인 커뮤니티의 남성 이용자와 여성 이용자가 해당 텍스트의 역사(이런 이야기들을 보기 쉬우며 오래된 남성 중심적 성관념에 근거한다는 것)와 그 가치(여성의 순결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젠더 권력관계)를 이해할 수 있고 여성 수용자에게는 이를 전복시킨다는 데서 오는 쾌감을, 그리고 남성 이용자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세계가 무너지는 불쾌감을 준다는 점에서 성공한 패러디이다. 게다가 이 세심하게 재현된 말투(말줄임표의 사용)가 온라인 포르노그래피 공유 공간으로 알려진 소라넷의 남성 이용자를 특징짓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수용자들에게 주는 쾌감/당혹감은 더욱 이 패러디의 의미를 풍부하게 한다.

결혼할 남자는 동정이었으면 하는 게... 여성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남성분들겐...죄송한..애기지만서두...

솔직히...결혼할 남자는 동정이었음... 좋겠다.. 싫은 것이 솔찍힌..여우의 마음입니다 ㅎㅎ이년자녀 낳았을 성기.. 찹찹하게 사실.. 제아이... 아버지.. 될.. 남잔데.... 어디서... 낙태하고.. 튀었을지도 모르구... 동남아에.. 애가있을지.. 누가 안답 ㅎㅎ17)

17) 파라독사, 슬로우뉴스, 2015.6.10, “여성혐오의 겨울반사: 디시인사이드 메르스 갤러리 사태에 부쳐”, <http://slownews.kr/41983>(2015년 8월 31일 검색)

윤보라(2015)는 메르스 갤러리의 텍스트가 빠른 속도로 생산될 때 이러한 텍스트를 생산한 것이 남성이었을 것이라고 남성 이용자들은 주장했으며, 이는 이 정도로 유머 생산 능력을 지닌 여성이 존재할 리 없다는, 여성 비하적인 발상과 관련이 되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다수의 남성 중심 사이트에서 메르스 갤러리의 게시자들은 ‘여자코스프레하는 남자들일 것이다’라는 반응이 있었던 것을 상기하면 이러한 해석은 타당하지만, 동시에 남성 이용자들의 당혹과 불쾌는 “자신들만의 온라인 공간에 여성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어왔던 신념이 무너졌을 때, 즉 온라인 세계에 여성이라는 타자가 존재함을 환기하게 되었을 때 온 것이라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정희진(2015)이 여성 문제가 공적인 지식이나 정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던 바에서 미루어, 알려지지 않았던 여성에 대한 지식 중 하나가 공개된 셈이다. 여성 역시 온라인 공간에서 살아가며 남성들이 하는 일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되받아쓰기의 전략이 지워진 식민지 타자의 목소리를 들리게 함으로 해서 제국의 유일성에 도전하게 된 것과 비견할 수 있다.

이러한 전유와 패러디 전략에 대한 논란은 물론 서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예를 들어 힙합 음악의 영역에서 여성 래퍼들이 ‘Bitch’라는 단어를 자신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하며 그 부정적 함의를 전유하고자 할 때 발생한 논란이 있다. “존중받을 만한 여성”(즉 존중의 정치 politics of respectability)이 되는 것은 결국 인종주의와 가부장제의 규준에 맞는 여성이 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존의 질서에서 동등하게 인정받고자 하는 노력 대신 자신의 말을 하려고 하고 ‘인정받는 말이 아닌 말’을 하는 것(즉 불경의 정치 politics of irreverence)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를 볼 수 있다(Chepp, 2015). 버틀러는 ‘인용’을 통한 혐오 발언의 전유가 흑인 래퍼 스스로 N-word를 사용했던 사례처럼 그 (원래의) 맥락을 벗어나 발화하는 주체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Butler,

1997). 이에 비추어 메르스 갤러리의 패러디는 인용을 통한 전유이며 기존의 맥락을 탈각시키면서 혐오 발화를 패러디하는 주체에게 힘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전략은 의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이며 그것이 기존의 질서에 대한 저항이 됨을 인식하는 것이다.

패러디의 힘은 즐거움에 있다. 혐오 표현을 전유하면서 혐오의 비논리성을 드러내고자 하며, 이를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SNS 계정을 통해 전시하면서 트위터 페미니스트를 자칭하는 젊은 여성들은 페미니즘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저항이 심각한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메르스 갤러리에서 메갈리아를 만들어가는 젊은 페미니스트들은 온라인의 문법과 문화에 익숙하다. 신지현(2015)은 페미니즘은 재미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한편으로 이는 소셜 네트워크와 커뮤니티 활동의 ‘재미’와 관련된 것이다. 즐거움이 전유와 패러디의 원천이 된다는 것은 신지현(2015)의 언급대로 페미니즘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함께할 수 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해준다.

패러디에 대항하는 자본의 일차적 전략은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를 수행하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메르스 갤러리에 대한 디씨인사이드를 비롯한 남성 이용자들의 일차적 대응 역시 명예훼손소송과 협박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남성혐오’나 ‘역차별’이라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그저 언어적 등가에 불과한 담론들이 남성 이용자들의 ‘여성혐오’ 표현에 대한 정치적, 정서적 무감각함을 유지시키는 중이다. 메르스 갤러리와 이후 이를 계승한 페이스북 페이지 및 메갈리아 사이트 등은 현재 온라인 공간에서 일베와 동일한 지위를 차지하면서 ‘여혐’ 대 ‘남혐’이라는 허구적 구도 속에 배치되었음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18)</sup> 또한 패러디는 원본 자체를 바꾸지 못한다는 점에서, 권력의 문제를 다시 고민하게 만든다.

18) 대표적으로 비교적 진보적이며 온건한 커뮤니티로 알려진 PGR21의 다음 게시물은 일베와 메갈(혹은 메갈리아)를 동일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다수의 이용자가 댓글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http://pgr21.com/pb/pb.php?id=freedom&no=60951&page=21>

메르스 갤러리의 패러디를 보면서 “와 애네들 정말 잘 알고 있는데? 재밌다.”라고 즐기는 일부 일베의 반응<sup>19)</sup>은 원본을 가진 자가 자신들의 권력의 유일성과 온전성을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기도 하다.

전유의 힘이 원본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본의 권력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이미지를 구성해내는 전용(이광석, 2009)에 이르기 위해서 온라인상의 ‘여성혐오’ 표현 패러디 이후를 고민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sup>20)</sup> 그렇기 때문에 현재 메갈리아 내부의 다양한 논쟁들은 여기 모인 소셜 네트워크 페미니스트들과 페미니스트임을 자처하지 않지만 이 논쟁에 관심을 가지는 여성 이용자들이 어떻게 담론을 구성하고 스스로를 힘돋우기 해낼 것인가를 실험하는 장으로 볼 수 있다.

## 5. 나가며

2015년 ‘여성혐오’ 표현이 사회적 의제가 된 것은, ‘여성혐오’가 이제 단지 온라인 공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대중문화의 각종 사건들과 맞물리면서 일종의 문화 정치적 의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sup>21)</sup> 일베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상 혐오 표현에 대한 문제제기가 제도적 영역(방송통신심의)에서부터 연구 및 여성단체 활동 등을 통해 주요 의제화되는 과

---

19) 불온한 책다방 들락날락 주최 “지금, 페미니즘이 말해야하는 것”(2015.09.19) 토론회 참석자의 발언.

20) 이러한 점에서 메갈리아 사이트는 몰카와 같은 여성의 성적 자율성 침해와 도구적 대상화에 저항하지는 실천적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물론 메갈리아는 다양한 페미니즘들의 느슨한 집합이기 때문에, 성노동자와 같은 첩예한 이론적 이슈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럼에도 온라인 공간이 다양한 목소리들로 울려져야 하는 공명의 공간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메갈리아의 현재는 충분히 의미 부여를 할 만하다.

21) <http://eponine.tistory.com/455> 블로거 에포닌은 2015년을 ‘여성혐오’의 해로 명명하여 연대기적으로 2015년의 사건을 기록하고 분석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정들이 존재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필요한 연구는 ‘여성혐오’ 논란을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여성 주체의 부상과 페미니즘 정치의 차원에서 살펴 보려는 시도가 될 것이다. 실제로 ‘여성혐오’ 이슈는 수많은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학습과 상호 교육 그리고 집단 지성의 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22)</sup>

이 글은 온라인 상의 ‘여성혐오’ 표현의 양상과 논리 구조에 집중하였다. 그런데 ‘여성혐오’ 표현이 대체로 일베에서 유래했고 그러므로 일베만이 문제라는 주장, 스스로를 이러한 ‘여성혐오’의 정서에 물들지 않은 사람으로 정체성을 규정하는 사례는 온라인 공간에서 흔히 목격된다. 그러나 성차별주의와 ‘여성혐오’의 정서는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표현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이미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윤보라(2013)의 지적처럼 단지 “일베만이 문제가 아닌” 것이다. 군가산점제 위헌소송을 계기로 구축된, 성별화되고 구획된 온라인 공간의 현 상황에서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토론과 합의에 이르는 공론장 형성이 어렵다. 남·녀 성별 대결 구도는 온라인 공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그 안에는 깊은 불신과 적대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 극단적이고 폭력적이며, 차별적이고 비하적인 성격을 갖는 ‘여성혐오’ 표현들이다.

문제는 한국 온라인 공간의 성별화가 바로 ‘여성혐오’의 결과물이었다는 점일 것이다.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가 더욱 더 보안을 강화하고, 회원 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 공개된 커뮤니티보다 회원제형 카페를 더 선호했던 것은 한국 온라인 공간 형성 시기 여성들이 경험한 사이버상의 성폭력과 괴롭힘을 피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였다. ‘안전한 공간’은 여성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정체성을 훼손당하지 않고 즐거움을 누리고 힘돋우기를 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건이다(김수아, 2007). 하지만 여성들만의 ‘안전한 공간’이

---

22) 대표적인 여성 중심 온라인 커뮤니티 외커([www.oeker.net](http://www.oeker.net))는 2015년 들어 페미니즘 도서를 추천하고 대중문화 비평을 시도하는 일반 여성들의 게시글이 가시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구성되면서 그 나머지 공개된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의 토론 공간들은 자연스럽게 남성적 공간으로 상정되었고 이는 한국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 문제를 비가시화하는 문제를 낳았으며, ‘여성혐오’ 표현들이 거침없이 온라인 공간에 등장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메르스 갤러리를 둘러싼 혐오 표현의 문화적 전유는 비가시적이었던 여성 주체들이 드러나는 계기로서의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다.

즉 온라인상의 ‘여성혐오’ 표현에 대한 제도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여성 주체들의 드러남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성 이용자가 드러나는 계기로서 다양한 문화적 전유들이 더 다양한 공간에서 보다 다기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온라인 공간에서 부상한 여성들의 실천들에 주목하는 것은, 온라인 공간의 특성 중 하나가 이용자의 실천을 통해 구성되어 가는 공간이며 변형과 개입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이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여성혐오’ 정서로 대표되어 있는 현재의 젠더 질서를 어떻게 재구성해 나갈 것인가. 이 공간의 가능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에 대해 협력적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 참고문헌

- 권김현영. 2000. “군가산점 소동과 사이버 테러”. 『여성과 사회』 11(1): 133-145.
- 구민경. 2014. “한국사회의 불편한 진실, 여성 혐오”. 『숙대신보』 2014.10.06.일자.
- 김문규. 2002. “여성혐오와 가부장의 비극: 타이티스 안드로니커스”. 『Shakespeare Review』 38(4): 877-904.
- 김수아. 2007. “사이버 공간에서의 힘돋우기 실천: 여성의 일상생활과 사이버 커뮤니티”. 『한국언론학보』 51(6): 346-380.
- . 2011. “한국 사회 사이버 공간과 젠더 정치”. 강상현 편. 『한국 사회의 디지털 미디어와 문화』.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 2015. ““여론은 흐른다?” 2014년 9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담론 구성”. 문화연구캐프운영위원회 등 주최 학술세미나 『세월호 참사와 문화연구』 발표문. 고려대학교. 2015.4.10.
- 김수아·최서영. 2007. “남성 정체성(들)의 재생산과 사이버 공간: 커뮤니티 게시판과 토론형 게시판의 비교를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8: 5-40.
- 김수정. 2011. “한국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정서구조와 문화정치학”. 『방송문화연구』 23(2): 37-72.
- 김용언. 2015. “김치년 백년사”. 『도미노』 7: 94-107.
- 김종환. 2005. “햄릿의 심리와 여성혐오”. 『신영어영문학』 32: 93-110.
- 김학준. 2014.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에서 나타나는 혐오와 열광의 감정동학”.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김현란. 2011. “중세 유럽 사회의 여성에 대한 이중적 태도: 혐오와 숭배”. 『서양중세사연구』 27: 69-96.
- 나라. 2015. “누군가의 삶에 반대한다? 성소수자 운동이 마주친 혐오의 정치세력화”. 윤보라 외. 『여성혐오가 어땠다구?』. 서울: 현실문화.
- 나은영. 2006.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익명성, 상호작용성 및 집단극화(極化)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2(1): 93-127.
- 남재일. 2015. “포털 연예뉴스 생산 관행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과학연구』 25(3): 83-105.

- 누스바움, 마사. 2012. “대상화와 인터넷 상의 여성 혐오”. 솔 레브모어, 마사 누스바움 편. 『불편한 인터넷: 표현의 자유인가? 프라이버시 침해인가?』. 의왕: 에이콘.
- (Levmore, S. & Nussbaum, M. 2011. *The offensive internet: speech, privacy, and reput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 Press).
- 박성호. 2003. “사이버 공간의 매체적 특성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 사이버 공간의 자유와 규제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17(1): 75-113.
- 박용숙. 2014. “미국에서의 증오표현행위의 규제에 관한 판례경향”. 『강원법학』 41(1): 467-509.
- 배은경. 2015. “청년세대의 젠더화를 위한 시론: 남성성 개념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8(1): 7-41.
- 신동희. 2014. “포털의 저널리즘적 역할에 관한 고찰: 언론과 포털의 갈등구조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10(1): 169-212.
- 신지현. 2015. “나는 어떻게 트위터 페미가 되었는가”.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주최 『대학원·학부 젠더 네트워크 학술포럼』 발표문. 서울대학교. 2015. 7. 9.
- 오미영. 2011. “여론과 소통의 집단 극화(極化)”. 『현상과인식』 35(3): 39-58.
- 오찬호. 2013.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고양: 개마고원.
- 우승정. 2014. “젠더 패러디: 켄스의 『여왕 크리스티나』와 처칠의 『클라우드 나인』 연극 비교”. 『현대영어영문학』 58(3): 131-149.
- 우에노치즈코. 2012.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서울: 은행나무.
- (ChizukoUeno. 2010. *Onna Girai- Nippon no misogyny*. Tokyo: Kinonuniya company).
- 유선영. 2013. “우경화 시대의 반페미니즘”. 유선영 외. 『지금, 여기, 여성적 삶과 문화』. 서울: 이화여대출판부.
- 윤보라. 2013. “일베와 여성 혐오: “일베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진보평론』 57: 33-56.
- 윤보라. 2015. “김치녀와 별거벗은 임금님들”. 윤보라 외. 『여성혐오가 어쨌다구?』. 서울: 현실문화.
- 이광석. 2009. “온라인 정치 패러디물의 미학적 가능성과 한계”. 『한국언론정보학』

- 보』 48: 109-134.
- 이미경. 1999.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폭력추방운동: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38: 73-86.
- 이수연 외. 2014.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최 『제89차 여성정책포럼』 발표문. 상공회의소. 2014.10.14.
- 이준호. 2015. “헤드라인 저널리즘: 신문과 포털 기사제목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언론학연구』 19(1): 249-280.
- 이향선. 2014. “미국에서의 혐오표현 규제 : ‘무슬림의 무지’ 동영상 사태로 촉발된 논란과 그 함의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심의동향』 2014(1): 30-43.
- 정끝별. 1997. 『패러디사학사』. 서울: 문학세계.
- 정희진. 2015. “언어가 성별을 만든다”. 윤보라 외. 『여성혐오가 어쨌다구?』. 서울: 현실문화.
- 주창윤. 2011. “젠더 호명과 경계 짓기”. 한국언론학회주최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프레스센터. 2011.5.30.
- 천관율. 2014. “이제 국가 앞에 당당히 선 ‘일베의 청년들’”. 『시사IN』 367호. 2014. 09. 29. <http://m.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41> (2015년10월 8일 검색).
- 홍성수. 2013. “표현의 자유의 한계: 혐오 발언 규제의 정당성과 방법”.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차별금지법 제정 연대 공동세미나』 발표문. 2013. 7. 18.
- 황슬하·강진숙. 2014. “온라인 여성호명 담론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방송학보』 28(4): 356-388.
- Adams, T. M., and Fuller, D. B. 2006. “The words have changed but the ideology remains the same: Misogynistic lyrics in rap music”. *Journal of Black Studies* 36: 938-957.
- Ashcroft, B. 2002. *The empire writes back: theory and practice in post-colonial literatures*. London; New York: Routledge.
- Awan, I. 2014. “Islamophobia and Twitter: A Typology of Online Hate Against Muslims on Social Media”. *Policy & Internet* 6(2): 133-150.
- Banks, J. 2011. “European regulation of cross-border hate speech in cyberspace:

- The limits of legislation”. *European Journal of Crime, Criminal Law and Criminal Justice* 19(1), 1-13.
- Bartlett, J. et al. 2014. *Misogyny on Twitter*, London: Demos.
- Butler, J. 1997. *Excitable speech: A politics of the performative*, London: Psychology Press.
- Chepp, V. 2015. “Black feminist theory and the politics of irreverence: The case of women’s rap”. *Feminist Theory* 16(2): 207-226.
- Citron, D. 2009. “Law’s expressive value in combating cyber gender harassment”. *Michigan Law Review* 108: 373-416.
- Citron, D. 2011. “Misogynistic Cyber Hate Speech”. 2011. 10. 27. [http://digitalcommons.law.umaryland.edu/cgi/viewcontent.cgi?article=2143&context=fac\\_pubs](http://digitalcommons.law.umaryland.edu/cgi/viewcontent.cgi?article=2143&context=fac_pubs)(2015년 10월 8일 검색).
- Foxman, Abraham H. & Wolf, C. 2013. *Viral hate: containing its spread on the Internet*,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Glasser, I. 1994. “ introduction”. in Gates Jr, H. L. (1994). *Speaking of Race, Speaking of Sex: Hate Speech, Civil Rights, and Civil Libertie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Hill-Collins, P. 2005. “Booty Call: Sex, Violence, and Images of Black Masculinity”. *Black Sexual Politics: African Americans, Gender, and the New Racism*, New York: Routledge.
- Jane, E. A. 2014. “‘Back to the kitchen, cunt’: speaking the unspeakable about online misogyny”. *Continuum: Journal of Media & Cultural Studies* 28(4): 558-570.
- Langton, R. 2009. *Sexual solipsism: philosophical essays on pornography and objectification*,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atsuda, M. J. 1993. *Words that wound: Critical race theory, assaultive speech, and the first amendment*, Colorado: Westview Press.
- McLean, J. & Maalsen, S. 2013. “Destroying the Joint and Dying of Shame? A Geography of Revitalised Feminism in Social Media and Beyond”.

*Geographical Research* 51(3): 243~256.

Rose, T. 2008. *The hip-hop wars: what we talk about hip-hop*. Hanover, NH: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Sarkeesian, A. 2012. Harassment, Misogyny and Silencing on YouTube. *Feminist Frequency*(2012. 6. 7). <http://www.feministfrequency.com/2012/06/harassment-misogyny-and-silencing-on-youtube>(2014년 12월 31일 검색).

Stewart, C. 2001. *Homosexuality and the Law: A Dictionary*. CA: ABC-CLIO.

Williams, R. 1977. *Marxism and Literatur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Abstract

### Misogynistic Cyber Hate Speech in Korea

Kim, Soo Ah

Associate Lecture Professor

Faculty of Liberal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has examined misogynistic sentiment arising as a major issue of the current popular culture in 2015, especially in connection with online culture. As a result, the paper argues that it can be often found some typical types of misogynistic expression which women are estimated with their appearance or age or described with a part of their body or genitals or as a sexual instrument, or the prejudice of their lack of ability. So, discrimination, abasement, or the sentiment of contempt for women is manifested as particular language in the current Korean online culture. What matters is that even if most people do not use such expressions,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such brutal expressions in online environment exposed to ordinary people all the time may possibly generalize the sentiment of abasement or deepen the prejudice for women. Those hatred expressions solidify and actualize the prejudice and are being extended and reproduced where the regulations are slightly deviated. So cyber hate speech can make how Korean perceive and treats women, entrench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for

women, then what we need right now is a media literacy and feminism education.

### **Key words**

Cyber hate speech, misogyny, cyberculture, entrenching prejudice

논문 접수일: 2015년 9월 1일

논문 심사일: 2015년 10월 1일

게재 확정일: 2015년 10월 1일